



2020년 11월 27일
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
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

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4 차)

1. 「대응(제 13 차)」를 얼마간 유지합니다.

「대응(제 13 차)」를 한 번 더 속도 하여 주십시오.

(후에 제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, 바로 연락하겠습니다)

2. 1월 1일(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)의 미사는 2회까지만 허가합니다.

업무해 주셔야 할 사항

- 주일미사의 횟수는 일요일 1회, 토요일특전미사 1회 입니다.
- 평일미사는 1일 1회 허가합니다.
- 독창은 허가합니다만, 참가자 전원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허합니다.
- 결혼식, 장례 등에서도 독창, 오르간연주 만으로 하여 주십시오.
- 신자가 참례하는 외국어 미사는, 인원수에 상관 없이, 거행할 수 없습니다.
- 미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거행하여 주십시오. 공동체의 구성에 의해, 외국어로 독서나 신자들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정의가 애매한 관계로, 오해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을 피하기 위해, 이제부터는 「국제미사」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성당활동의 제한은 해제하지 않습니다.

지금까지와 같은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